

■ 지역 국회의원들이 본 향후 정국

“호남 목소리 담을 정계개편 돼야”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 의원 = 정계개편 시기와 관련 양 의원은 “오는 7월에 고건 전 총리의 회담현대가 출범하고, 또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며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의 당권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 이후 정계개편의 서막이 열리고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정계개편이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의 참패와 한나라당의 대승으로 마무리 된 5·31 지방선거가 정계개편이라는 후폭풍 전선을 형성하며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현재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소위 ‘호남의 목소리’가 담긴 정권 창출은 어렵다는 인식 아래 정계개편에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중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위원장을 맡았던 양형일 의원과 전남도당 위원장을 지낸 주승용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낙연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김효석 의원에게서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한 정계개편론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9월 전후 정계개편 가시화 與·민주·고건 세력 뭉칠 것” 양형일(우리당)



“고건 희망연대 합류 극소수 우리당 정계개편 주도 가능” 주승용(우리당)



“대권주자 중심 개편 바람직한해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이뤄져야” 김효석(민주당)



“노 대통령-여권 갈라설 듯 정치권 범민주세력 통합” 이낙연(민주당)

원회 성격이 짙다”며 “그러나 고건 전 총리 한 사람을 보고 합류할 여야 의원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곡성) = 김 의원은 정계개편 방향에 대해 “이제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 구도는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 특히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계개편은 사회통합적 방향으로 이뤄져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물론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까지 접촉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정치인들은 우선 정계개편에 앞서 시대정신에 맞는 정치적 패러다임 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일견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충분히 국민들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계개편 시기와 관련 김 의원은 “아직 대선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잠복해 있다”며 “올해 내에 정계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민주당 이낙연(영광·함평) 의원은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받은 열린우리당의 해체 및 분열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를 내렸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 내의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가진 결과 ‘집(당)을 열고 새 집을 짓든지 아니면 정계개편 과정에서 새 집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사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각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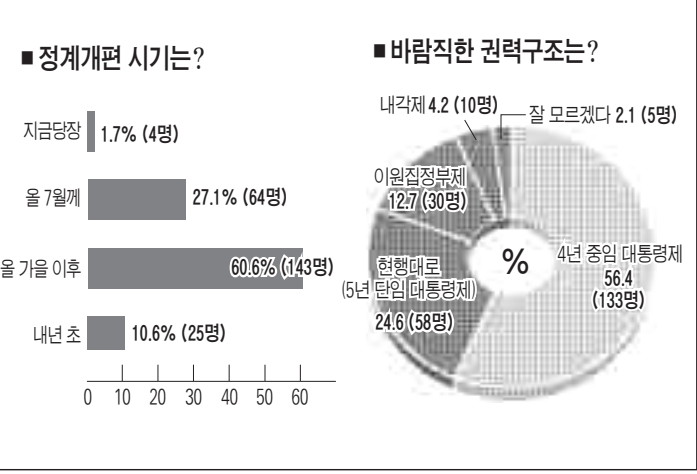
정계개편의 방향과 관련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범 민주세력이 모여 ‘통합 신당’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소위 민주세력 원로그룹이 회동하고 종진과 소장파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계개편 시기와 관련, 주 의원은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해 구체적인 모습이 들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건 전 총리가 주도” 62.3%

■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정계개편’ 설문조사



대해선 2.1%만 동의했다. 군소정당의 한계를 감안할 때 정계개편을 ‘주도’하기 보다는 일종의 ‘캐스팅 보트’(casting vote)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밖에 ‘한나라당’이라는 응답도 9.3%나 꽤 이채로웠다. <개편 시기는 언제쯤>= 본격적인 정계개편의 시기에 대해 ‘급년 가을 이후’라는 응답이 60.6%로 가장 많았다. ‘올 7월’은 27.1%, ‘내년 초’는 10.6%로 대선을 1년6개월 앞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부터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정쟁지기 전까지 이합집산이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43% “우리 일부+민주+국중당 바람직” 절반 이상이 ‘4년 중임 대통령제’ 선호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인사는 ‘한나라당 압승 및 열린우리당 참패’로 나타난 5·31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의 폭이 그야말로 ‘빅뱅(Big-Bang·대폭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정치권 이합집산과 대규모 지각변동으로 정계개편이 새 세력 재편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은 ‘고건 전 총리’라는 응답이 62.3%로 압도적이었다.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1차적 진원지로 예상됐던 여당 보다는 고건 전 총리가 정계개편을 견인해낼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고건 전 총리는 그동안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출몰 선두권을 달렸던 무소속 유력 후보다. 그는 최근 중도실용주의 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연대모임을 다음달 중 발표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광주일보의 5·31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3~5일 사흘동안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 486명을 대상으로 긴급 e-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체의 절반 가량이 236명이 응답했다. 조사 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해본다.

‘열린우리당’이 20.8%를 얻어 그 뒤를 이었다. 선거 참패의 충격 속에 구심력을 상실한 여당의 ‘핵분열’로 정계개편이 촉발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광주·전남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가진 민주당이 정계개편을 주도하는 시나리오에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광주일보 인터넷 패널과 조사개요

인터넷 패널은 독자와 함께 하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광주일보가 국내 신문사 가운데 최초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 학계와 법조, 정치, 경제, 여성, 문화 예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486명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패널들에게 e-메일로 설문내용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사실을 알리면 패널들이 인터넷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선거구제 도입에 따른 기초의원 후보 기호배정방법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전남 정치계에 따르면 정당의 지역 득표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정당과 무소속 후보에 기회를 주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

기초의원후보 기호배정 개선대책 필요

에 한해 중선거구제가 도입, 한 정당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으나 후보들의 기호가 같은 정당의 경우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배분돼 ‘가’ 기호를 배분받은 후보가 일반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이다. 이번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19곳에 후보를 복수 공천한 민주당은 ‘가’ 후보 19명이 모두 당선되었지만 ‘나’ 후보는 9명

만 당선됐다. 열린우리당도 19개 선거구 중 ‘가’ 후보는 13명이 당선됐지만 ‘나’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가’ 기호의 취지를 우선순위로 오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7월 9일 공무원 남경철직공인 공개사

전남고시학원

www.tnamnori.com

지붕 옥상을라트 우리탄폼 망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비양주목개발 TEL0621 262-0450

신내정원

511-8280

귀여운 평등 전강이 있습니다

익용식품 마카

1538-3071